

삼성전자, 내장형 M램 생산 돌입

인텔이 공개한 자칭 차세대기술

삼성엔 이미 상용화단계 '초격차'

자기저항 역학 활용한 빠른속도
효율 높고 저렴한 제품 만들어

삼성전자가 내장형 M램(embedded M RAM) 생산에 돌입했다. 최근 인텔이 관련 기술을 공개한 상황, 삼성전자는 바로 실제제품을 선보이며 다시 한 번 '초격차'를 증명했다.

삼성전자는 6일 엠램 솔루션 제품을 출하하고 기승캠퍼스에서 출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M램은 자기저항 역학을 활용해 비휘발성이면서도 D램 수준으로 빠른 속도를 내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다. 가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프로세서 캐시메모리와 전장용 메모리 등으로 각광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출하한 내장형 엠램은 IoT 등 소형 전자 제품에 사용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M램에 28나노 FD-SOI(완전공립형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 공정을 기반으로 만들어, 더 빠르면서도 효율이 높고 저렴한 제품을 실현했다.

삼성전자의 내장형 엠램은 종전까지 내장형 메모리 사용되던 플래시메모리와 비교해 1000배 가량 빠르다. 데이터 기록시 삭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소비 효율도 높다. 데이터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 라인.

/삼성전자

비휘발성이라 전원을 대기 전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다. 같은 이유로 동작 전압도 낮은 편이다.

구조도 단순하다. 기존 공정 기반 설계에 최소한의 레이어를 더하면 된다. 새로운 제품을 설계하면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생산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정은승 파운드리사업부장 주도 하에 M램을 육성해온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텔이 지난 달 내장형 M램 기술을 공개한 상황, 삼성전자는 바로 양산을 시작하며 다시 한 번 초격차를 증명해냈다.

삼성전자는 올해 안에 1Gb 내장형 M

램 테스트칩 생산을 시작하는 등 내장형 메모리 솔루션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다른 차세대 메모리인 P램도 내년 양산을 목표로 순조롭게 개발 중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전략마케팅팀 이상현 상무는 "신소재 활용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차세대 내장형 메모리 솔루션을 선보이게 됐다"며 "이미 검증된 삼성 파운드리의 로직 공정에 eMRAM을 확대 적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과 뛰어난 생산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 인도 스마트폰 시장 공략... '갤S10' 출시행사

고동진 사장 현지서 참석

삼성전자가 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갤럭시 S10' 출시 행사를 개최하고, 인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현지 파트너·미디어를 비롯해 인도 전역의 갤럭시 팬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삼성전자 IM 부문장 고동진 사장은 "삼성전자는 새로운 혁신을 담은 갤럭시 A, 온라인 전용 모델 갤럭시 M을 인도에서 가장 먼저 선보이며 더 많은 인도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모바일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며 "디스플레이·카메라 등 지난 10년의 갤럭시 혁신을 집대성한 갤럭시 S10을 통해 새로운 모바일 사용 경험의 혁신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에서는 갤럭시 S10을 비롯해 최신 기술을 모두 탑재한 '갤럭시 S10+',



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갤럭시 S10' 출시 행사에서 삼성전자 IM부문장 고동진 사장이 '갤럭시 S10'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핵심 기능을 강화한 '갤럭시 S10e' 등 3가지 모델이 8일 출시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인도 '삼성 멤버스' 회원 1000만명 돌파를 기념해 갤럭시 팬들이 직접 갤럭시 S10을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갤럭시 팬 파티'를 열었다.

지난 1995년 인도에 처음 진출한 삼성전자는 현재 인도 특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 법인을 비롯해 5개 R&D센터, 디자인센터, 2곳의 생산기지를 운영하는 등 인도 시장 확대에 힘쓰고 있다.

/구세윤 기자 yuni2514@

삼성SDS, 이스라엘 이과지오에 투자

차세대 클라우드 기술에 지분 넣는다

삼성SDS가 투자를 통한 글로벌 IT 신기술 확보로 클라우드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SDS는 삼성벤처투자 펀드를 통해 차세대 클라우드 기술인 '서버리스 컴퓨팅' 분야의 선도기업 이스라엘 이과지오에 투자했다고 6일 밝혔다.

서버리스 컴퓨팅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고객은 애플리케이션 구동에 실제 사용된 자원량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다.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필요한 서버 자원을 바로 할당받고, 사용 후 자동 반환 처리되기 때문에 고객은 클라

우드 인프라 확보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개발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스타트업과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기업들이 서버리스 컴퓨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삼성SDS는 이과지오의 서버리스 플랫폼을 자사 PaaS(서비스용 플랫폼)에 탑재해 서비스로 제공하고 관련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투자를 추진했다.

/구세윤 기자

한화큐셀, 美·獨서 특허침해소송 제기

고효율 셀 기술 관련 특허기술 보호
태양광 업계 건전한 연구경쟁 유도

한화큐셀은 태양광 셀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자사 특허기술의 보호를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은 진코슬라, 롱지슬라, 알이씨그룹 등 3개사, 독일은 진코슬라, 알이씨그룹 2개사가 대상이다.

소송 대상 특허가 실현된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소송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루어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로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했다.

한화큐셀은 소송 대상 특허 기술을 이용해 2012년 세계 최초로 퍼크(PERC)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Q.ANTUM) 셀 양산에 성공했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관련

기술을 진화시켜 왔다.

한화큐셀은 자사 태양광 기술의 보호를 위해 소송 대상 특허를 포함한 관련 특허를 다수 신청 및 확보해왔으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2018년 말 기준 원전 10기 수준에 해당하는 10GW 이상의 퀀텀 셀 누적생산량을 달성했다.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한화큐셀은 퍼크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 셀 생산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이어왔다"며 "소송의 대상인 보호막 기술은 기술 혁신을 향한 지속적인 헌신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가지는 의미를 상기시키고 태양광 업계에 건전한 연구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태양광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화큐셀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피고 회사들의 태양광 셀 및 모듈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와 수입은 금지된다. 또 불법적인 특허 침해행위로 인해 과거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회사들로부터 배상 받는 것도 가능하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LS산전, 日 세번째 메가솔라 발전소 완공

460억 투자... 18MW급 발전소 구축

LS산전이 일본 현지에서 수주한 세번째 메가솔라(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됐다.

LS산전은 사업비 약 460억원 규모 18MW(메가와트)급 하나미즈키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갖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LS산전은 지난 2017년 9월 일본 혼슈 이시카와현 가시마군 지역 약 30만 제곱미터(m²) 부지에 구축되는 '하나미즈키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자로 선정, 발주사인 이시카와 하나미즈키 1합동회사와 EPC 턴 키 사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LS산전은 같은 해 지반 등 기초공사를 끝냈고 겨울 혹한기 휴지기를 거쳐 지난해 2월 말 시설물 설치를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12월 구축 공사를 끝낸 후 올 실증 및 계통연계 운영

을 시작했다.

이번 준공식에는 전종세 LS산전 일본법인장을 비롯해 발주사인 이시카와 하나미즈키 합동회사와 현지 시공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시카와 하나미즈키 합동회사는 호쿠리쿠전력과 매년 약 5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20년에 걸쳐 kWh당 36엔의 가격에 공급하는 PPA(전력구매계약)를 체결했다. 일본법인 LSIS 재팬을 통해 책임준공과 발전효율을 보증하고 설계·조달·시공은 물론 향후 20년 간의 운영·유지를 총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LS산전의 첫 일본 메가솔라 사업인 이바라키현 미토 뉴타운 메가솔라 파크 발전소와 2017년 완공된 일본 최초의 태양광-ESS(에너지저장장치) 연계 39MW급 훗카이도 치토세 태양광 발전소에 이은 세 번째 사업이다.

/김유진 기자

한진중 채권단, 6874억 출자전환 추진

한진중공업은 6일 채권단이 채무 6874억원을 출자 전환하면서 채무 액수만큼 유상증자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 1월 필리핀 해외현지법인이었던 수빅조선소 회생신청 이후 2개월여 만이다.

한진중공업에 따르면 이번 유상증자는 제3차 배정증자 방식으로 보통주 6874만1142주를 주당 1만원으로 발행한다. 해당 주식은 산업은행 등 국내 채권단과 필리핀 은행에 배정된다.

또 기존 한진중공업 주식 1억605만 2508주의 86.3%에 해당하는 9151만 9368주를 감자하기로 했다. 대주주와 일반 주주를 구분해 최대주주인 한진중공업홀딩스 등이 보유한 3338만6809주는 전량 소각하고 일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5대 1 비율로 차등 감자한다.

채권단의 한진중공업 지분은 기존 5.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 조선소

18%에서 83.45%로 늘어났다. 최대주주도 한진중공업홀딩스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 변경된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생존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유자산 매각과 각종 개발사업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영민 기자 ywji964@